

## 농촌사랑 공동선포식

개방은 이제 선택할 수 없는 현재의 흐름, 농업의 경쟁력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존경하는 농민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부 여러분 특히 고향을 걱정하는 주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협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경제인 단체 대표가 다 나오셨습니다. 대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길을 만들고 있다.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방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고 많이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 주장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개방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개방을 통한 무역국가가 되지 않으면 세계 일류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진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개방사회로 가야합니다. 개방을 하면 우리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걱정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궁지에 몰려 몰락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루하루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겨우 견디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일 것입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투쟁하는 심정 이해가 됩니다. 많은 주부들이 많은 시위를 싫어하지만 농민들의 시위는 봐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두들 걱정을 함께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함께 길을 찾아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길

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자리는 처음입니다. 안 된다고 움츠리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찾아 나서서 벽을 허물어뜨리고 전진할 때 우리 국민들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갑시다. 여러분들은 방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길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농민들이 세계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농업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책을 마련합시다.

이제 도저히 경쟁력 없는 연세도 많고 더 이상 대책이 없는 분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지불을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복지대책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우리 농촌이 붕괴하지 않도록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채를 줄이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자기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지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보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결의로 지원해주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가 농민과 농촌이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를 잘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더라도 할 일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힘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술과 정책만으로는 농민 문제를 다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서야 하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농민은 소비자를, 소비자는 농민을 사랑합시다. 섬기자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우리농촌을 한번 더 살핍시다. 청와대에도 우리 농산물만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유기농법을 사용한 것을 씁니다. 이렇게 작은 마음을 모

을 때 길이 열립니다. 농민들이 정성 드린 농산물을 사랑으로 먹어주면 우리 농민들이 숨쉬기가 나올 것이며,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먹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살리는 길입니다. 농민 여러분께서는 시장에서 내놓아 경쟁해 이기는 상품은 우리 국민 밥상에 올리는 농산물은 농촌과 도시를 한마음으로 묶는 사랑의 농사를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우리 농민과 농산물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도시 주부들도 콕콕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믿음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끈 믿음의 띠로 총총히 엮어 농촌을 살리는 그물을 만듭시다. 벼랑에서 서 위험에 있는 농민들을 살리는 믿음의 그물을 만듭시다. 경제단체장들이 함께 나섰습니다. 농촌의 다리를 든든하게 놓고 있습니다. 제가 90년대 국회 농촌위에서 의정활동 한 적이 있습니다. 죽는다 해도 노력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효과 있고 보람 있게 해서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자신을 가지고 희망을 일궈나갑시다. 어렵지 않더라도 희망과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 농민들이 이겨나갈 것입니다.